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파견대학

대학명	저장경찰대학교	기숙사비	793000/한 학기
파견지역	항저우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파견기간	2019년 9월1일~ 2020년 1월 10일	기타비용	200~300

▣ 파견자 정보

성명	△△△	학과	△△△학과
성별	여자	학년	4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9. 12 . 30 .

파견자 : △△△ (서명)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대학 현황 보고서

■ 수업

경찰대학교의 교육과정은 크게 읽기, 말하기 듣기, 문화수업 3가지로 나뉩니다. 저희는 월요일이 공강이었고 한수목금 수업을 하였습니다. 8시부터 10시 50분까지 오전수업, 1시 30분부터 3시 55분까지 오후수업이었습니다. 화요일은 오전수업, 수요일은 오후수업, 목요일과 금요일은 오전 오후 수업 둘 다 하였습니다.

읽기 수업 같은 경우는 4급 수준의 책을 보며 학원수업이랑 비슷한 수업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문을 읽고 설명해주고 문법도 설명해 주고 같이 문제를 풀거나 문제를 풀어오라고 과제를 내어주셨습니다. 말하기 듣기 수업도 거의 읽기 수업과 비슷했습니다. 컴퓨터에 나오는 음성을 듣고 두명씩 짝을 지어서 말하고 단어 따라 말하고 문법 설명해주시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화 수업은 중국의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PPT로 설명해 주십니다. 학교의 수업은 한국의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는 형식과 비슷하였고 다른 점은 중국어로 수업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따로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거나 수업시간에 틀려도 상관없으니 자신감 있게 말을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중국인 친구들과 많이 만나서 노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저희는 한국인 4명에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학교 학생들 보다 선생님보다 더 집중적으로 많이 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읽기 수업과 문화수업의 선생님은 같은 선생님이로 경찰이신 분이 가르쳐 주시는데 학생들에게 관심도 많이 주시고 잘 가르쳐 주십니다. 말하기 듣기 수업의 선생님은 외부강사 선생님이로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거의 매 주마다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의 내용은 대부분이 책의 문제를 풀어 오는 것입니다.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저는 항저우에 9월에 왔습니다. 항저우는 엄청 습하고 덥다는 얘기를 들어 걱정했습니다. 역시나 항저우는 습했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덥기도 하였지만 9월 말 부터는 춥기 시작하여 12월에는 패딩을 입고 다녔습니다. 패딩 꼭 챙겨오세요. 항저우의 추위는 한국과 다르게 뼈가 시렵습니다. 학교의 위치는 매우 좋습니다.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어서 관광지인 기차역 모두 갈 수 있고 옆에는 큰 상가들이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식당도 있고 마트, 미니소, 화장품가게, 맥도날드, kfc 등등 찾으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기 오시게 된다면 공상은행을 쓰시게 될건데 건너편에 있는 중의학대학교에 ATM기계가 있어서 은행까지 안가도 됩니다. 은행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자전거로는 10분 내외로 갈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도 공상은행 ATM기계가 있지만 입금이 안 되는 ATM 기계라 거의 잔액조회용입니다. 그리고 항저우의 물은 더럽습니다. 꼭 샤워기 필터를 가져오세요. 항저우가 다른 도시보다 물이 깨끗하다고 하는데 샤워기 필터를 자주 갈아야 할 정도로 물에 불순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한국에서 걸린 적 없는 다래끼가 심하게 걸려 중국 대학병원에서 수술도 했습니다. 내가 만약 혹시 면역력이 약하고 물이나 공기에 대해 민감하다면 오실 때 다래끼 약을 꼭 챙겨서 오세요. 그 정도로 공기와 물이 안 좋아요. 그러나 다른 학생들은 괜찮은거 보면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학교 안에는 세탁소가 있어서 신발도 빨아 주시고 드라이 클리닝도 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도 있고 택배보관소도 따로 있어서 편리합니다.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관광지에 갈 수 있지만 버스 타고 1시간을 넘게 가야 하기 때문에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추천드립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정보

비 용	793000원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밤 10시 이전에 돌아오기, 외박하기 위해서는 선생님께 가서 외박계를 써야합니다. 밖에 나가거나 돌아올 때도 위챗으로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야 합니다.		
주위사항	만약 외박계를 쓰지 않았거나 단지 잠깐 나갔다 오기 위해 위챗에 연락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걸리면 유학생 단톡방에서도 주의를 받고 따로 혼날 수도 있습니다.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기숙사 화장실은 매우 좋습니다. 변기도 좌변기이고 샤워시설도 훌륭합니다. 세면대도 넓찍하여 쓰는데 불편함이 없으며 청소 도우미 분들이 매일 청소해주시고 휴지도 같이 주십니다. 대신 수건은 돈을 내야 바꾸어 주십니다. 화장실 안에는 원래 있던 드라이기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화장실 슬리퍼도 원래 있던 것입니다. 또한 청소 도우미 분들께서 매일 쓰레기통을 비워주셔서 편리합니다.



기숙사 옷장은 하나가 있습니다. 저것을 반으로 나누어서 룸메이트분과 쓰면 됩니다. 침대 옆에도 한 칸 짜리로 된 붙박이 옷장이 있지만 조그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옷이 몇 개 없습니다. 짐이 많은 분이라면 보관품을 넣을 곳이 마땅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문 쪽에 베란다처럼 짐을 넣을 수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빨래를 널어야 하기도 하고 짐을 넣으면 답답하기도 하여 불편합니다. 그래도 옷장이 가운데 뿐만 아니라 위, 아래 칸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리만 잘 한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경찰대는 전기세와 수도세가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 에어컨으로 히터도 켤 수 있어요. 그런데 에어컨이 엄청 더럽습니다. 청소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수리 아저씨가 와서 청소 해주셨는데 청소 전혀 안되고 저는 에어컨만 키면 눈에 디레끼가 났습니다. 그리고 히터 켜도 겨울에 춥습니다. 또 히터나 에어컨 오래 키고 있으면 밖에 있는 파이프가 언다고 낮에는 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파서 틀고 있었는데 청소 도우미분들과 직원분이 오셔서 낮에 틀지 말라고 끄고 가셨습니다. 그래도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기숙사는 5층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2층에서 삽니다. 이곳 기숙사는 다른 것이 호텔입니다. 경찰 연수생분들 또는 외부 손님들이 오시면 묵는 곳입니다. 그래서 청소 도우미 분들이 매일 청소해 주시고 관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경찰대에는 쿵고, 모잠비크, 라오스의 유학생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본과생이라 다른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만 이곳에서 삽니다. 밤에는 전등이 켜져 있어서 다니기에 무섭지 않고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1층에는 저희를 관리해주는 유학생 담당 선생님이 계십니다. 또한 유학생이 쓸 수 있는 식당과 자습실, 회의실도 있습니다.



유학생 식당은 라오스, 모잠비크, 쿵고, 한국 유학생이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은 4년동안 이곳에서 공부하기에 거의 요리를 해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매일 청소를 해도 위생적이지 않습니다. 냉장고도 사용할 수 있지만 열어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고 청소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학생들은 매일 같이 당번을 정해서 청소를 합니다. 한국 유학생은 청소 안해도 됩니다. 저희는 가끔 전자레인지정도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 당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곳 옆에는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존재합니다. 식탁 4개 정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른 나라 학생들과 친해 질 수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중국어를 매우 잘하고 영어를 잘 하는 친구도 몇몇 있습니다.

대학 현황 보고서



학교 식당에 음식을 많이 팝니다. 식당 종류도 5 가지 정도 되고 가격도 비싼거는 15위안, 밥은 1 위안 반찬은 거의 3위안 정도 합니다. 여기는 경찰대학교답게 식당이 365일 문을 엽니다. 아침은 6시부터 먹을 수 있고 저녁은 저녁 5시30분~6 시 사이에 문을 닫습니다. 공휴일에도 문을 열기 때문에 먹는 문제 걱정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음식도 향신료 걱정을 할 정도로 향신료가 강하지 않습니다. 밥도 한국밥과 비슷하여 햇반은 안사오 셔도 됩니다. 그런데 식당 업체가 이번부터 바껴서 엄청 맛없어졌다고 합니다. 또 중국의 음식이 기를져서 처음 한달 두달 정도는 괜찮지만 나중에는 식당에서 밥 먹는게 꺼려질정도입니다. 또한 음식의 메뉴는 매일,언제나, 항상 똑같아서 질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먹거나 밥만 포장해서 집에서 김과 김치 또는 한국 음식을 먹게 됩니다. 인스턴트 한국음식을 인터넷 쇼핑으로 배달시킬 수 있습니다.



경찰대 매점은 매우 좋고 가격도 쌉니다. 학교 근처의 대형 마트보다 물건이 쌉니다. 학교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모든 것이 팔고 과일도 싸게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매점은 거의 아침 6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합니다. 사프와 노트도 팔고 한국 과자인 초코파이와 오뜨, 카스타드도 팝니다. 매점에는 다양한 과자와 음료수, 아이스크림, 빵 등을 팔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질리게 됩니다. 물건이 언제나 똑같습니다.



세탁실에 세탁기가 6대 정도 있고 건조기는 2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말고도 세탁실이 많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세탁실을 사용하려면 어플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세탁은 한번이면 3위안이 필요하고 건조기는 10분에 1위안씩 필요한데 건조기가 조그만해서 90분을 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완전히 뽕송하게 말리려면 건조기 2대에다가 빨래를 나눠서 120분 썩은 돌려야 뽕송해집니다. 세탁실에는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가 따로 없어서 자신이 직접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어플에서 지금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몇대 남았는지, 몇분 남았는지 확인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교환학생 파견 후기

저는 중국어 관련학과도 아니고 취업에 중국어가 필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어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고 경찰대에서 수업을 처음 들었을 때는 니 하오도 못읽고 한자, 발음 모든 것이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필 경찰대는 4명밖에 수업을 듣지 않아 다른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 저는 4급 수준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따라 갈 수 없었죠.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고, 내가 뭘 배우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책에 있는 한자의 병음을 모두 써갔고 예습과 복습도 계속 하였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 보다 열심히 했다고 자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한달 차에는 이런 수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두달 차에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인 거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세달 차에는 한자의 병음을 찾지 않고 한자만 봐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며 마지막달에는 선생님의 말이 들리고 대답을 하게 되고 수업이 재밌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와서 느낀 점은 언어는 무조건 현지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지에 오니 모든 환경이 중국어였기 때문에 더 빨리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건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중국의 물과 공기가 안 맞았던 것이죠. 오자마자 다래끼가 났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갈지 말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저는 중국 대학병원에서 다래끼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지만 학교에서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다래끼는 2주에 한번 씩 양쪽 눈 번갈아 가면서 재발하고 감기도 계속 걸리고 감기는 나아지지도 않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걸 이겨내기 중국어 공부도 더 재밌어지고 중국 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이 덕분에 중국의 대학병원도 가보고 병에 대한 중국어 단어도 알게 되었다~라고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이 면역력이 안 좋다, 평소에 한국에서 몸이 골골 되고 아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면 약 많이 챙겼겠지?” 라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약을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제발요...

저는 이런 건강상태에서도 여행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황산, 난징, 쑤저우, 상해 우전 등 근교를 거의 여행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행을 다니며 쓸 수 있는 회화도 늘어나고 중국의 도시마다 다른 분위기와 문화를 느껴서 좋았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 다녀는데 전혀 무섭지도 않고 오히려 중국어를 더 많이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에 오게 된다면 여행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경찰대학교 특성상 지각, 결석을 매우 싫어합니다. 혹시라도 오늘은 너무 졸려서 계속 자야겠다, 라거나 너무 힘들어서 가지 말아야겠다는 등의 이유로 수업에 선생님이 모르는 결석을 하게 되면 유학생 담당선생님이 기숙사 문을 열고 들어와서 깨우는 경험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전환하다가 나중에는 문을 열고 기숙사로 들어오십니다. 또한 경찰대는 계속 유학생을 보고 모여서 특강을 듣거나 어디에 참여하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내용을 미리 알려 주는게 아닌 전날 저녁, 그날 당일 아침에 알려주십니다. 만약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단톡방에 계속 빨리 오라고 위챗과 전환을 남기십니다. 그래도 아프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괜찮지만 경찰대학교는 아픈데 못 오는 것을 이해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모두 정이 많으시고 좋은 분들입니다. 저희의 건강도 신경써 주시고 학교생활 등 전반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경찰대에 오려면 내가 어느 정도의 자유를 포기 하겠다 마음을 먹고 오시는게 좋습니다. 고등학교 같아요. 나갈 때 마다 위챗으로 시간과 어디 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말해야 합니다.

경찰대의 단점은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른 학교처럼 중국인 친구와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도 없고 또한 이 학교의 친구들은 매우 바빠서 저희를 만나 줄 시간도 없습니다. 수업이 고등학교 보다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의 수업을 저희가 들어가서 그 친구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고 도와주며 친해지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오로지 자신이 정말 노력해야 친구

를 사귄 수 있습니다. 낯을 가리거나 그런 분위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곳의 학생들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 남성분들이라면 같이 운동을 하며 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경찰대에는 라오스, 모잠비크, 콩고의 학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 친구들과 친해질려면 유학생 식당에 가서 안면을 트면 됩니다. 유학생 식당에서 자주 저녁에 그 친구들끼리 파티도 하고 음식도 하며 재밌게 놀니다. 거기에 가서 께달라 하면 다 께줍니다. 이 친구들은 한국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교환학생에 오게 되면 읽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워 하지마시고 교환학생에 도전하세요. 중국어를 몰라도 올 수 있고 아는게 없어도 올 수 있고 몸이 안 좋아도 올 수 있습니다.